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27호 불국사금동아미타여래좌상



내 마음을 가져가요

홍영철

불생불멸의 피안은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도 마음이 아니던가요

내 속에 그것이 있을 거라면

그대, 내 마음을 꺼내 가요

내 몸을 파헤치고

다 가져가도 괜 찮날아요

몸이란 마음을 담는 그릇이 아니던가요

어서 와요

여기 와서 내 마음을 꺼내 가요

그대 안의 상처가 풀리어

아름도 슬픔도 벗어질 수 있다면

여기 와서 내 마음을 다 가져가요

어서 와요

그때까지 나는

여기 이래로 앉아 있었어요

천년을 그랬던 것처럼

결코 일어지지 않을 거예요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홍영철 시인은... 대구 출생. 1978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와 〈문학사상〉으로 등단. 시집 〈작아지는 너에게〉 등.

19대 국회의원 불자 '40명' 당선

새누리 32명, 민주 7명, 통합진보 1명... 18대보다 16명 줄어

은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졌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자 지역구 당선자는 37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 대표에는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불자의원이 56명이었던 지난 18대 국회보다 무려 16명이 줄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통합당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자유선진당, 무소속에서 불자 의원은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통합진보당에서는 비례대표 당선자 1명만이 불자였다. 이에 따라 전체 의석 3백석 중 불자 의원 비율은 13.3%를 채우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주요 불자 당선자는 강남을에 출마해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을 꺾은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김을동(서울 송파병), 주호영(대구 수성구), 안홍준(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김태호(경남 김해시) 등이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서울 광진에서 당선한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제주), 최재천(서울 성동갑),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이 주요 불자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비례대표에는 새누리당에 김장실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과 통합진보당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 등이 불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란히 3선의원이 된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과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정치권과 불교계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재선의원이 된 주호영 의원 역시 불교종

립 노인고등학교를 졸업한 불교 인재로, 선거 사무소 개원식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종단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등 불교계와 끈끈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도 동국대 정각회에서 '불교와 현대정치'를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진행할 정도로 독실한 불자다.

19대 총선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 중 하나가 군소정당들의 난립이었다. 대표 보수 논객이자 불자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올해 2월 국민생각당을 창당하고 자신도 서초구에 출마했으나, 3등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불교문화 발전 '정각회' 활동 기대 불교연합, 기독교당 등 종교정당 '無'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장주스님이 창당한 불교정도와화합 통일연합당은 지역구(서울 종로) 1명, 비례대표에 4명의 후보를 냈지만 모두 참패했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정당들 역시 한 명의 의원에 배출하지 못해 한국 사회에서 종교 정당은 아직 이렇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 정각회 의원은 40명 선으로 18대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 등 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했던 만큼 불교와 전통문화 발전에 불자의원이 응집력을 가져주길 기대하고 있다. 불교계 역시 불자 오피니언 리더 양성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번 꼽아야 할 때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정 스님도 소중한 한 표의 권리 행사"

진제 스님 19대 총선 투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대거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했다.

진제 스님은 4월 11일 오전 6시 40분 부산 해운정사 인근 해동체육관 2층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진제 스님과 함께 부산 해운정사 소임 스님들과 선부 스와 스님 등 11명도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부산 범어사 신임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해 부산 지역 불자들의 투표도 이어졌다. 수불 스님은 부산 안국선원 인근 투표장인 해맞이어린이집에서 투표를 마쳤다. 수불 스님은 투표 직후 범어사에서 취임 이후 첫 중무회의를 열고 국장직 임명 등 업무를 시작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당 명	불자 국회의원 당선자
새누리당	김종훈(서울 강남을), 김을동(서울 송파병), 이현승(부산 진구을), 이진복(부산 동래구), 김정훈(부산 남구갑), 김도읍(부산 강서구을), 서병수(부산 기장군갑), 유승민(대구 동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정갑윤(울산 중구), 강길부(울산 울주군), 이재영(경기 평택을), 이우현(경기 용인갑), 이이재(강원 동해삼척),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김동원(충남 당진), 정수성(경북 경주), 김태환(경북 구미을), 장윤석(경북 영주), 정희수(경북 영천),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김재현(경북 군위익성청송),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 박성호(경남 창원의창), 안홍준(경남 창원마산회원), 김재경(경남 진주을), 여상규(경남 사천), 김태호(경남 김해을), 김장실(비례), 송영근(비례) 총 32명
민주통합당	추미애(서울 광진을), 김명주(서울 영등포갑),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강창일(제주 서귀), 김우남(제주서을), 최재천(서울 성동갑),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총 7명
통합진보당	정진후(비례) 총 1명



조계종 비구·비구니 292명 배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4월 3일 김천 직지사 금강계단에서 제32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번 수계산림에서는 사미 184명, 식차마니 108명 등 292명이 새로 구족계를 받았다. 스님들은 회향식에 앞서 2일에는 보살계 수계, 3000배 철야정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이제 이 자리의 수계제자들은 삼계의 도사이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의 길을 함께 가는 청정 비구·비구니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라며 "수계제자들은 한국불교가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의 문명사적인 위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역할에 항상 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타당성 논한다

조계종, 4·5월 공론의 장 마련

환경위원들의 사퇴로까지 불거졌던 구례군 케이블카 시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혜경)는 4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4월과 5월에 걸쳐 정부, 자치단체, 전문가, 종단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가 진행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에 대한 찬반 의견 청취와 결론 도출을 위한 공청회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소한 3

차례 이상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 논의된 결과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종단의 입장으로 정리돼 환경부에 전달된다.

하지만,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종단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화엄사 토지 수용 조건부 승인에 반발해 사퇴한 상황이어서 공론의 장 참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사회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어 왔다"며 "모두가 동의 가능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떠나 관련 당사자 모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김연아나무 마가목



숙취해소

- ❖ 백세팔팔 : 국내특허 10-07071300(마가목 차음료) 상표출원번호 : 40-2012-0015906
- ❖ 청 명 천 : 국제특허 PCT/KR2004/003474(숙취해소) 국내특허 10-0663952(숙취해소)
- ❖ 갯바위 생식 : 식사 대용식
- ❖ 오채 단이슬 : 국내특허 10-0663948(야채 미용음료)
- ❖ 오과 단이슬 : 국내특허 10-0663947(과일 미용음료)

회원 모집

갯바위자비회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476번지

☎ 053)311-2675 (대구사무실)

불자를 위한 불자의 기업
주식회사 자운 www.jawoonfood.co.kr
전국총판 / 대리점 모집 TEL 053)311-2626~7

